

# 풍요로운 예술의 거리를 걷는다

음악 · 미술 · 건축을 향한 산책

산책이나 기행은 당장 소용되는 실용적인 쓸모라고는 없다는 점에서 예술과 많이 닮았다. 예술이라는 말이 연연 중에 풍기는 여유로움과 한가로움도 산책의 표정과 같다. 그러니 이 두 말만큼 잘 어울리는 말도 없을 듯하다. 음악기행, 미술산책, 건축기행. 경제적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90년대 들어 책을 통한 예술로의 산책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피렌체 공설시장의 개장시간인 오전 7시. 개점 사이렌이 울리자 한 곳에서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솔로가 울렸고, 곧 솔로는 유니송으로 변하여, 음악으로 아름답고 명량한 하루가 시작된다.”

음악으로 하루를 여는 이탈리아의 아침 풍경이다. 유럽 도시마다, 골목마다 스며있는 위대한 음악가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음악기행서는 음악이 삶과 얼마나 밀착된 것인지 보여준다. 독일에 살고 있는 여행전문가 황영관씨의 《유럽음악기행》(부·키)은 음악가가 있었던 곳이라면 어느 도시, 어느 골목이든 안내한다.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가 시차를 두고 1~2년씩 살았던 빈의 란트슈트라서 하우프트 거리, 몇 번지에 누가 얼마동안 살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음악을 만들었는지 설명한다.

물론 모든 게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태에서 만든 음악인지 이해하면 같은 음악도 다르게 들린다. 한국일보 김성우 고문의 《세계의 음악기행》(한국문원)도 만년의 바흐가 27년간 창작활동을 하다 숨진 성 토마스 교회를 둘러보며 ‘마태수난곡’의 탄생의 눈앞에 잠힐 듯 그려준다. 문밖 출입도 하지 않고 매달린지 24일만에 완성한 헨델의 ‘메시아’도, 빈 시민 중에서 유일하게 왈츠를 추지 못했다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환상적인 ‘왈츠곡’도 음악가의 고향에 가장 잘 어울린다.

미술로 접어드는 길은 먼저 미로처럼 이어진 미술관을 향해 열려있다. 미술평론가 혹은 미술관의 관장들이 세계의 미술관을 둘러본 경우가 흔하다. 한국미술관의 김윤순 관장이 20여년 동안 돌아본 세계의 미술관을 총정리한 《세계미술관기행》(코리언북스)은 프랑스, 스페인, 서유럽, 일본 등 7개 지역으로 나눠 루브르 미술관, 매그 미술관, 피카소미술관, 고흐미술관 등 40개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을 해설했다.

서양 예술의 탄생지인 유럽이 미술기행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름다운 미술품은  
삭막한 도시의 거리조차  
그럴듯한 산책길로  
만든다. 한빛은행  
등대문 지점 벽화 부조.  
천재화가 오윤의 작품.  
《김철의 미술》  
(한울) 중에서



아트스페이스의 이주현 관장도 53일 동안 유럽 10개국 50개의 미술관을 돌았다. 《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학고재)에는 특히 유럽미술의 특질을 한국인 미술평론가로서 살펴보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테이트 갤러리에서는 영국 회화에 청교도적 윤리가 영향력을 가져왔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영국 회화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덕분에 독자들은 터너나 블레이크, 레이놀즈 같이 잘 알려진 화가에 앞서 조금은 생소한 밀레이, 힌트 등을 포함한 ‘라파엘 전파’를 소개받게 된다.

## 가상미술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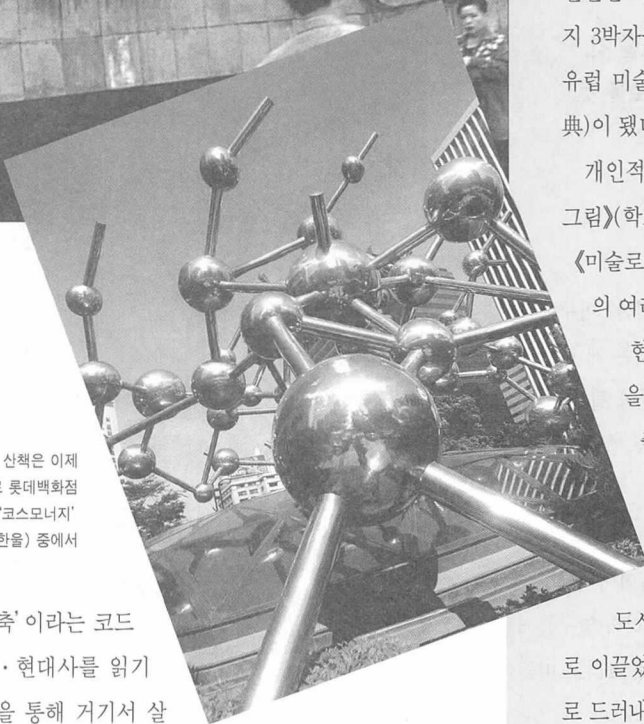
서양미술사 전반을 둘러보는 가상의 미술관은 어떨까. 한 사람이 전세계 미술관을 다 돌아볼 수도, 설사 돌아본다 해도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이상이 되기 어렵다면, 하나의 맥락을 전제하고 지은 가상의 미술관 순례는 흥미롭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수잔나 파르취가 쓴 《당신의 미술관》(현암사)은 회화, 조각 뿐 아니라 미술관에 들여놓을 수 없는 건축물들까지 한 데 모아 수천년에 걸친, 수십개 문화권에 걸친 미술관을 완성했다. 걸음이 느린 초보자들도 쉽고 흥미롭게 안내자를 따라 갈 수 있어서 좋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로 돌아오면 한가로움 산책의 꿈은 깨진다. 높고 뾰족하기만한 건축물들, 길은 넓지만 연신 매연을 뿜어대는 자동차의 행렬로 도무지 낭만이라고는 없다. 하지만 그 길은 건축물과 함께 “인간의 역사를 증언하는 상형문자”가 된다. 아키반연구소 김석철 소장이 쓴 《세계건축기행》(창작과비평사)은 포로 로마노에서 로마제국의 쇠망사를, 산 마르코 광장과 리알토 다리에서 도시 베네치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신의 공간인 판테온이나 이세신궁에서는 영원한 현재를 믿은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

세계의 유명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이제 서울을 걷는다. 사랑할 수 없을



책을 통한 예술로의 산책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울지로 롯데백화점 앞에 세워진 정관묘의 '코스모너지' 《길섹의 미술》(한울) 중에서



것 같은 서울에서 '건축'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읽기도 하고, 도시의 풍경을 통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정동 교수(목원대 도시공학부)의 《근대건축기행》(푸른역사)은 '좌절의 얼굴'로 일컬어지며 사회·예술사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근대 건물들을 살핀다. 한국식 자본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대구 삼성상회 사옥부터 갑신정변의 무대에 세워진 근대 교육기관 경기고교 본관을 비롯, 제일은행 구분점, 명동 국립극장과 동양극장 등을 망라해 역사의 그늘을 보여준다.

이쯤에서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리, 거주하는 집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건축가 서현이 쓴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효형출판)와 국민일보 손수호 문화부 차장의 《길섹의 미술》(한울)은 지금 걷고 있는 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특히 《길섹의 미술》에 소개한 도시의 미술품은 바다와 숲이 보이는 산책길만이 최선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천재화가 오윤의 삶과 꿈을 만나고 싶다면 서울에서도 한복판 광화문에서 청량리쪽으로 난 간선도로를 따라가 보라. 그 종로 4가 초입,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오윤의 부조 앞으로는 바쁜 사람들만이 오간다.

— 이현주 기자

## 우리 시대 빼어난 예술 산책가들

산책에서 쉬이 지치지 않으려면 좋은 안내자가 필요한 법이다. 선율을 따라, 미로같은 미술관의 복도를 따라 걷는 일도 마찬가지다. 미술, 음악, 도심의 건축물들 사이로 독자들을 능숙하게 이끄는 전문가들이 최근 스테디셀러 작가로 등장하고 있다.

미술분야에서는 단연 아트스페이스 화랑의 이주현 관장이다. 탄탄한 지식, 쉽게 읽히면서도 감칠맛 나는 문장, 남다른 감성까지 3박자를 갖췄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쓴 첫 책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1·2》(학교재)는 유럽 미술 산책에 정전(正典)이 됐다.

개인적인 경험과 미술사적 의미를 조화시킨 《내 마음 속의 그림》(학교재),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한 20세기 미술을 안내한 《미술로 보는 20세기》(한겨레신문사) 등을 잇따라 펴내 미술의 여러 갈래 길을 맛보여줬다.

현대인의 생활공간이지만 산책이라는 말과는 인연이 없을 것 같은 도심 속을 거니는 책도 많아졌다. 도시와 건축을 통해 인간공동체의 공간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은 데는 누구보다 아키반연구소 김석철 소장의 공이 크다.

그는 《세계건축기행》(창작과비평사)과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해냄) 등을 펴내 우리를 번잡한 도시로 이끌었다. 인류의 유산 중에서 건축은 인간의 삶을 복합적으로 드러내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이룬다는 관점이 신선했다.

풍요로운 음악의 숲길을 안내한 사람은 한국일보의 김성우 논설고문. 《세계의 음악기행》(한국문원)은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곡의 탄생에 얽힌 뒷이야기와 작곡가의 발자취를 따라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첫째가 편하게 읽히는 '저널식' 서술. 기자 출신 저자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신문 연재물을 묶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또 풍부한 인문적 교양을 바탕으로 철학·역사 등과 연계해 전문지식을 흥미롭게 전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길을 걷는 동안 산책가들은 볼 뿐 아니라 정신을 움직인다. 능숙한 예술로의 안내자들의 책이 많이 읽히는 것은 무엇보다 걸음걸이를 뒤따르는 그들 정신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말은 예술의 세계를 거니는 발걸음의 속도를 뜻하는지도 모른다.

— 이현주 기자